

기획 우리고을 포천의 문화유적 26 - 이규채선생 행적비(李圭彩先生 行績費)

김구선생과 한국독립당 結成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받아



최 중 규
포천명유회 회장

립당(韓國獨立黨)결성에 참여하여 군사부참모장(軍事部參謀長) 및 총무위원장에 피선(被選)되었다.

1933년 중국군 상교참모(上校參謀), 이듬해 신한독립당(新韓獨立黨), 감찰위원장이 되었다가 1935년 상해 일본 영사관 왜경(領事官 倭警)에게 체포되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중 1940년 가출옥(假出獄)되었다.

8.15 민족해방후에는 신탁통치(信託統治)반대 국민연맹위원, 미소공동회의(美蘇共同會議)대책대표위원, 대한독립촉성국민회 회장등을 지냈고, 1963년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단장(單章)이 수여되었다.

이 행적비(行績碑)는 선생의 조국광복에 바친 공로(功勞)와 독립투쟁정신을 기리기 위해 1982년 포천출신 독립유공자 공적비건립추진위원회에서 건립한 것이다.

화강암 옥개(屋蓋)와 장방형의 대석(臺石)을 갖추었으며 비신(碑身)은 대리석이다.

비의 높이는 175cm, 폭 60cm, 두께 30cm의 규모이다.



가신면 방축리에 위치한 이규채 선생 행적비.

- 지정번호: 향토유적 제 10호
- 소재지: 포천시 가신면 방축리 403
- 규모: 높이 175cm, 폭 60cm, 두께 30cm
- 비고: 李圭彩

이규채(李圭彩 1866~1948)선생은 포천이 낳은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로서 호는 우정(宇精), 동이(東亞), 경산(庚山), 본관은 경주(慶州), 일명 규보(圭輔)라고도 불렀다.

일찍이 3.1운동 당시 창신서화연구회를 창설하여 비밀리에 항일투쟁을 전개했고 상해로 망명한 후 1923년 상해 임시의정원의의(臨時議政院議員), 1928년 김구(金九) 등과 한국독

제22회 남부현대미술제 환영사

統一시대 한국현대미술제로 거듭나길



황 형 일
한국미술협회 포천시지부장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제22회 남부현대미술제에 초대된 작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반도의 끝단 제주도에서부터 전국각지에서 한반도의 남부 최북단도시 포천까지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시어 한국의 미술계를 빛내시는 작가 여러분들! 예술과 더불어 언제나 넉넉한 삶을 즐기시는 내인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은 각 도시마다 고을마다 독특한 향기가 있고 멋이 있고 풍류가 있는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이것은 외국에 나가보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입니다. 우리 포천도 다르지 않게 푸근한 인정이 있고 멋이 있고 풍류가 있는 곳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만나는 도시” 우리 포천은 면면 최익현 선생님의 충절의 고장, 오성과 한음의 선비의 고장이며 때문지 않은 청정지역으로서 경계를 일구고 문화를 가꾸어 가는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고을입니다.

한반도의 중심지역에 위치하여 수도 서울보다 더 큰 면적을 자랑하는 마치 봄날 아침잠에서 깨어 기지개를 켜며 싱그러움 숲을 바라보는 것 같은 살기 좋은 고을입니다.

또한 통일로 가는 길목의 중앙에 위치한 지역적 여건으로 앞으로 다가올 통일의 문을 여는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통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를 걸고 펼쳐지는 제22회 남부현대미술제는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 한반도의 분단은 아직도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내일 여러분들께서 둘러보실 여러 현상들은 날로 희미해져 가는 분단의 아픔을 다시 한번 느끼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포천지역의 미술회원은 지역거주작가를 포함하여 모두 200여 명쯤 됩니다. 결코 많은 수는 아니지만 100미터 출발선상에 있는 육상선수처럼 준비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문화향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천 미술분야의 활동만 살펴봐도 지난해, 2005년도에는 문화마인드가 뛰어난 우리 고을 수장님의 의지로 국제조각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세계에서 명성 있는 내외조각가들의 작품이 산정호수 조각공원에 자리잡게 되어 관광객들을 즐겁게 하고 있고 제1회 포천아시아미술제를 개최하여 16개국 117명의 작가들의 작품이 반월아트홀 전시장 전관을 수놓은 예술의 진치가 있었습니다.

또한 통일로 가는 길목의 중앙에 위치한 지역적 여건으로 앞으로 다가올 통일의 문을 여는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포천현대미술제, ‘산자수명’ 포

천미술실기대회, 경기미술협회회원초대전, 포천미술협회정기회원전 등은 미술분야의 조출한 잔치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늘 오후 2시에는 국회의원사당을 지은 그 유명한 질 좋은 화강암의 출토지였던 폐석산을 문화관광지로 되살리려는 포천아트밸리 기공식이 신북면에서 있었습니다. 몇 년 뒤 포천을 방문하실 때는 이곳도 빼놓지 말고 관광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도 포천은 군사도시로서 사람 살 곳 못된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술예술로서 하나가 되고 문화예술로서 한반도 통일의 초석을 다지려는 작가 여러분! 서울 중심의 중앙미술에 대응한 남부 미술가들의 결집체인 남부현대미술제 운영위원, 초대작가 여러분! 저는 스물 두 번째 맞는 이번 포천의 전시회가 이제 전국미술을 평정하였다고 봅니다.

이제 작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미술제를 더욱 발전시켜 우리의 염원인 한반도가 통일이 되는 날 한반도 전체의 “한국현대미술제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포천을 찾아주신 남부현대미술제 고문, 운영위원, 초대작가 여러분, 그리고 전시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여러분을 포천미술협회 전 회원을 대표하여 열렬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회고사

“각자의 장점 살려 소중한 사람 되길”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와 발표력 갖춘 졸업생 배출

이 글은 한탄강댐 건설이 결정되면 수몰예정지구로 언제 물속에 잠길 줄 모르는 가운데서도 지역주민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이 마음을 모아 학생들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중리초등학교 졸업식에서 최계혁 교장이 졸업생들에게 주는 회고사다. (편집자주)

어려운 속에서도 6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제46회 졸업식을 맞는 졸업생과 졸업생 가족 여러분께 재학생과 교직원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해에도 슬기롭고 가슴 따뜻한 사람이 되기 위한 학력 높이기, 소질개발, 생각과 견문 넓히기를 통해 성취감과 자신감, 사고력을 키우는데 함께 힘썼습니다.

특히 이번 46회 졸업식을 맞는 졸업생 12명이 앞장서서 시간 나는 대로 수학교과에 대한 자기학습력을 높였고, 전교생이 참여하는 어린이회 운영과 월요일에 국발표 조화를 통해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와 발표력이 향상되었으며 국가기술 워드자격을 획득, 자기계발에도 큰 성과를 얻는데 절대 모자람이 없는 졸업생으로서 재학생 후배들에게

자랑스런 졸업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칭찬의 박수 보내주실까요!

졸업생 가족 여러분! 입학하여 이렇게 성장하기까지는 무엇보다 가족들의 헌신적 뒷바라지와 보살핌, 희생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속상하고 애매했던 가슴을 어찌 다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의지가 강한 형포, 마음이 따뜻한 준태, 늘 부지런한 동식이, 마음이 넓은 최성민, 성실하고 날렵한 현일이, 협동심이 강한 세광이, 의지 있는 영재, 효행 깊은 성주, 활발하고 넉넉한 용기, 모

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성민, 지도력 있는 영란이, 마음 착한 수경이.

졸업생 여러분은 이 자리를 가슴에 담고, 키워주시는 부모님 은혜,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 은혜 잊지 말고 더 높은 곳으로 오르고, 더 멀리 보며, 다른 사람에 보탬이 될 더 소중한 사람이 되길 당부하며 끝으로 다시 한번 졸업식을 축하합니다.



최 계 혁
중리초등학교 교장

자유기고

고등학생의 설레임

얼마 전 졸업식을 했다. 친척들과 가족들이 모두 오셔서 졸업식을 축하해 주셨다.

뒤돌아보니 3년이라는 시간동안 나에게 크고 작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처음 나보다 더 큰 교복을 입고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과목별 수업과 선생님, 초등학교와 다른 학교생활에 모든 것이 낯설고 지금은 두렵지 않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면서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도 심하게 받았고, 나와 생각이 다른 친구들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었다.

어려서부터 계속 살던 가산에서 송우리로 이사하고 부모님과 딸

어저서 동생과 둘이 티격태격 지내며 가족의 소중함을 배웠다. 동남중학교로 3학년초에 전학을 와 새로 만난 친구들과 함께 남이섬으로 소풍 가서 자전거도 타고 돈을 모아 보트도 탔던 일이 가장 기억 남는다.

어느덧 난 입고 다녔던 교복이 작을 만큼 훌쩍 컸다. 얼굴의 여드름이 나니 또 다른 고민이 되었고, 새로운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설레임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중학교를 다니며 겪었던 힘든 일들과 변화들이 나를 많이 성장하게 했다. 전처럼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



김 연 홍
중3학년

공부도 더 어려워지고 또 내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생기겠지만 이젠, 기대가 생긴다.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내가 되고 싶다. 내가 이렇게 예쁘고 밝게 살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신 선생님들과 부모님에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나 자신을 위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내가 되길 다시 한번 다짐해 본다.

아인스월드는 부천시 원미구 상동 명성문화단지 내 건설된 상위 빌딩건물 떠나서 테마파크 전체에 25개국 109종의 유명 건축물이 전시된 공간입니다.

세계 최고 건축물테마파크 아인스월드

파리지앵 Festival 4/15~6/19

“아인스월드에 가면 당신이 파리지앵입니다!”

60일간의 프랑스여행

프랑스 문화에 빠져-법시대
감미로운 선율의 밤
- 관현악이 함께하는 노랑이래의 낭만
감미로운 프랑스 음식의 향연
- 와인과 크레페의 멋진 만남
재미있는 연극공연
- 프랑스어로 하는 연극은 어떻게? 연극수업은 왜 꼭 필요하죠?

여러언어는 프랑스에서~
어린이를 위한 인형극
- 어린이의 몸수업
- 인형극 공연을 통해 규칙적인 식습관을 깨달아요~
환상의 물풍선이
- 자네의 꿈이 하나 내려올까?
아름다운 추억
피자 도우 Show!
- 피자 인형을 이용한 화려한 쇼 (Mr.Pizza 드림팀 출연)

즐거움을 함께하는 아인스월드!
● 폼파르드 카페 이벤트
- 카페리제 / 페이스페인팅
- 살아 움직이는 풍상 마인스
● 민법의 아인스월드
- 노랑이래에서 즐기는 민법
- 가리지앵의 흥미로운 연극
- 알랑의 화려한 물풍선이
● 포도콘 이벤트
- 프랑스 자네의 미래에 대해 물어봐
- 함께 쿠키를
- 체험할 때마다 상을 사기 되어주세요
- 세계 유명 건축물의 레전드 이야기
- 재미있고 알찬 시간입니다~

사진찍고-파리까지
● 아인스월드의 즐거움 추억을 사진에 담아 직접 파리로 떠나는
신나는 사진 콘테스트
1등 프랑스 7박8일 여행권!! (미션권) 디지털 카메라, 무료입장권 등
(이벤트 대상은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아인스월드에서 프랑스의 모든것을 만나보세요~이제 당신이 파리지앵입니다!”

후원 PARIS VISITE KB 카드 비씨카드 Mr.Pizza

세계최고건축물 테마파크 아인스월드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2번지 대표전화 032-320-6000 www.ainsworld.com 인터넷 검색창에 아인스월드를 쳐보세요! 행운이 쏟아집니다!